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6월 방모임 일정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3일(금) 오후 8시. 교육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방별 모임 대신에 연합 방모임으로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 * 29일(목)-31일(토) 장신대 신대원생 ‘교회 밖 현장 실천’ 기간. 공동체를 방문 중인 학생들이 각 방모임에 흠어져 참석합니다.
- 멩쟁이학교 학년별 여행이 12일(월)-16일(금)에 있습니다. 해외문화체험학습 중에 있는 학생들의 남은 기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귀국일, 5학년(유럽) 14일, 4학년(미국) 22일.
- 장미숙 권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소흘읍 무림4길 4-27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승호 집사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이돈희 · 정세일 선생 가정 (결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24 호

2023년 6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顯忠日)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한 열사들의 애국심과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현충일을 매년 지켜오는 것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을 본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역사를 지닌 우리에게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날에 있던 사건, 그 시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에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사건이 바로 이런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이 출애굽의 기억에서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기억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해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역사와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방공동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년은 사랑방공동체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방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흘러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나온 시간 속 의미 있는 일들과 사람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방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방에게 주신 사명대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르심 앞에 누가 어떻게 응답하여 그 일들을 감당했고 해오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모임이나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각 개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정리하는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사랑방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사랑방 공동체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순종한 분들을 앞세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선열들을 기억하며 보내는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사랑방 공동체의 영웅들도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있어 지금의 사랑방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
< 로마서 12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68장 406장 / 351장
기도 : 정영옥 집사
성경 : 역대지상 20장
제목 : 다윗 왕이 암몬과 블레셋을 물리치다

1. 내용: 다윗 왕이 주변 나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What)
<문단구분>
1절~3절 <암몬에 승리하다>
4절~8절 <블레셋에 승리하다>
2. 의미: 신앙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야 할 때가 있다. (Why)
 - 1) 암몬 왕이 다윗 왕을 깔보았기 때문에 벌인 무모한 처사가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 2)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 부하들이 거인들을 물리쳤다.
3. 적용: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부활 믿음으로 따라가자. (How)
 - 1)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신중함을 덕목으로 삼자.
 - 2)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우리 만난 지 100일째

중학교에 입학한 지 100일 된 1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백(百)’자가 새겨진 떡과 음료수를 전교생에게 선물로 나눠주었고, 1학년 교실이 있는 층의 복도에는 예쁜 그림이 그려진 펼침 막도 걸어주었습니다. 그 펼침 막엔 ‘○○중학교 1학년, 백일의 성장을 축하해요. 더욱 의젓하고 성숙한 중학 생활 기대할게!’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6월 9일), 제가 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의정부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생을 벗어나 중학생이 되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애썼을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봐주는 선생님들의 사랑이 제 맘속까지 밀려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있던 영어 강사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인 딸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인 자기도 딸이 중학생 된 지 100일인 것을 몰랐다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애썼다고 말해주고 등 두드려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실의 칠판 맨 위쪽에는 ‘우리 만난 지 100일째’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말이 붙어있었어요. 올해 첫 발령을 받은 새내기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반인데, 그 반 아이들을 만난 날의 수를 매일 칠판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00일이 된 날, 아주 예쁘게 인쇄한 종이를 붙여놓고 축하한 거예요. 반 아이들을 마치 애인처럼 생각하는 그 선생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아~ 참 좋구나!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구나!’ 하고 새삼스레 느낀 날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픈 마음이 막 샘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을 한번 세어 봐도 좋겠어요. 그 사람과 만난 날만큼 사랑과 관심을 주고, 그와 만나는 날이 늘어갈수록 기쁨이 커지고, 그와 서로 마주 보며 손뼉을 쳐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예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따뜻한사랑방 이재신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역대지상 16 : 26-29 인도자
3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시 편 103 : 8-9 인도자
391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로마서 12 : 1-3 설교자
434 비움사랑방
“ 산 제물로 살아갑시다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288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채영대 장지영/ 봉헌위원 : 이충환/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 제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주십시오. 아멘.

산 제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 약속의 백성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 흠 없는 어린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피 흘려 문
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어린양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
수님을 성전삼아 주셨으며 우리들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상숭배가 아닌 타자를 위한 삶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
으셨지만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으며 우리들을 향
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적인 헌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산 제
물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의 소명의식을 기억합시
다. 참된 열심을 품고 살아갑시다. 열심이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성실히 행하는 것입니다. 바른 소명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이기심,
그리고 그로인한 교만과 시기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자
들이 모여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정혜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아빠와 함께 캠프를 드디어 했습니다.

집에서 여러 날 동안 꾸러기와 아빠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텐트 앞에 걸 문패를 만들고 가족사진과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식단을 정하고 장기자랑 연습도 했습니다.

다섯 시에 학교에 와서 아빠와 꾸러기가 함께 텐트도 치고, 친구네 텐트를 칠 때도 나서서 돕습니다. 저녁과 간식은 아빠들과 함께 준비해 먹습니다. 가족사진을 넣을 액자를 이것저것 붙여 꾸미는데 일곱 살 여자 친구들은 나름 질서 있게 문양을 만들어냅니다. 사진 속 가족들을 서로 소개하고 장기자랑을 합니다. 연주와 노래, 춤, 아빠 몸을 이용한 덤블링 등을 보여주었는데 꾸러기들의 성향과 가족의 분위기, 집에서 아빠와 꾸러기가 함께한 시간들이 보였습니다.

무림리의 차가운 밤공기를 서로의 체온으로 이겨내고 아침을 맞습니다. 자기네 음식을 다른 집들과 나누느라 꾸러기들이 이리저리 음식을 배달합니다. 숲과 마당을 산책하며 주변나무들을 살펴보고 집에 남은 식구들을 위해 딸기와 상추를 따고, 물총놀이를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아빠들끼리 마음나누기를 합니다. 다른 식구들 없이 오롯이 아빠와 꾸러기가 함께한 시간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나의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과의 만남이 소중한함을 확인합니다.

캠프를 위해 어른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기도와 여러 가지 도움으로 함께해주신 사랑방공동체에, 그리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빠알~갹게 보리수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고개를 들고
대롱대롱 달린 익은 열매를 찾느라 친구들의 눈동자가 무척 바쁩니다.
배움과 가르침

아직은 설익은 열매가 더 많아서 빨간 것을 당겼는데 초록색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모 선생님께서 좀 더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먹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기다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6월은 독서를 장려하는 달로 정해보았습니다. 밖에서 놀기 좋은 계절이라 도서관을 찾는 친구들이 적어서 6월 한 달의 독서량을 보고 시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서지기 하민이가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손님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손님?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며 드는 생각이 손님이란 참 반가운 사람이구나.

교회에도 학교에도 집에도 반가운 손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외출 없는 한주를 보냈습니다. 변수 없이 오롯이 학교 안에서만 보내는 것도 재밌네요.

어린이 소식이었습니다.

< 교사 : 하경임 >

멋쟁이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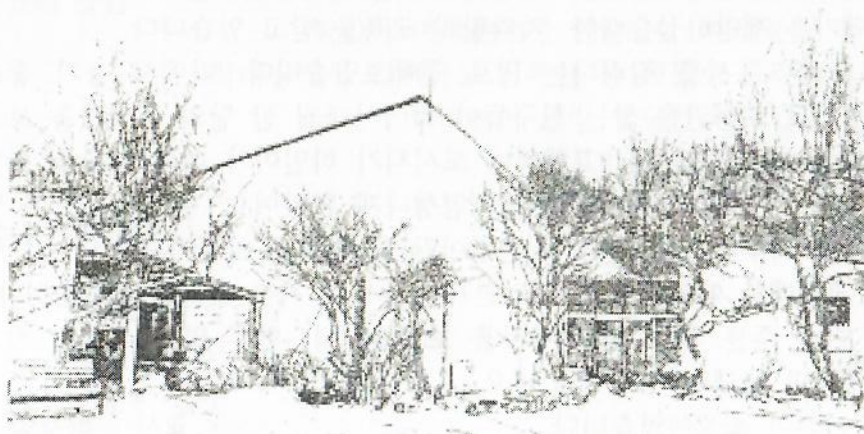
연휴를 지내고 6일 화요일 밤에 등교했습니다. 짧지만 알찬 학교 생활을 위해 '활기차게 생활하자'를 생활 표어로 정해 지켰습니다.

3주 동안 체육 시간에 진행했던 축구 특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금세 정든 황보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곧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공동 심화 학습은 지난주에 이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기념하며 에어로켓을 직접 만들어보고, 날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리를 몸으로 깨닫고, 누리호 발사 성공의 대단함을 강렬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열린 수업은 학년별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멋쟁이들의 비공식 최애 여행인 만큼 열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내일, 학년별 여행을 떠납니다.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특별히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3학년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장성아 >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책상 한 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나
름의(?)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고, 주님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무례하게 소리도 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이곳 사랑방
공동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윤희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장영미 전도사
찬송 : 79장, 478장, 419장
성경 : 골로새서 1: 15-23
말씀 : 예수님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
태평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 철저한 조사를 하여 정확
하고 투명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방류를 멈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여 인류를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위
협 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동광원>
1) 동광원 언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도록.
2) 복음 공동체의 본질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3) 해외 선교 및 다문화 공동체 지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멧쟁이 학교 4,5학년들을 포함하여 외부로 나가 있는 공동체 식구
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2) 공동체에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현충일 휴일을 맞이해 꾸러기학교에서는 공동체 마당에 텐트를 치
고 아빠 캠프를 열었습니다. 식구들은 천막과 텐트 치는 일에 손을 보
태 돕고 공동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었습니다. 아빠와 신나게 뛰노는 꾸러기들을 보니 공동체 자녀들이
커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한대연에서 개최한 대안교육 포럼에 사랑방학교 교장
단 선생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포럼 중에 교장의 역할에 대해 정태
일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큰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모든 창문을 닫고 파라솔도 접어 두
며 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
기 전에 시설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